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피부샵에 명품 휘둘러야 잘 사는 건가요?

김신희

모처럼의 망중한이다.

현대인은 무엇에 그리 바쁘고 쫓기는지 때론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다.

사람들은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그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만추로 치닫는 계절이 되면 불현듯 자신을 뒤돌아보고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넘겨보며 지나간 봄과 여름을 아득하게 추억하며 또다시 반성을 거듭하게 된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는 것도 오늘 같은 산길에서다.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등산객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인다. 모두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다. 젊은 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모습들이 그려진다.

어떤 이들은 산자락에 밭을 일구어 수확을 거두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구마를 캐는가 하면 콩포기를 뽑아 말리는 모습도 보인다. 배추는 시퍼렇게 속을 채우는 중이며 무는 살이 실하게 올랐다. 보랏빛 갓은 그 색깔만으로도 눈부시다.

자연은 이처럼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우주의 순환질서에 의해 나무는 물이 들고, 산은 수척한 가운데도 곱게 단풍이 들었다.

사람들은 갈무리를 위해 손길이 바쁘고 모처럼 시간을 얻은 나 같은 이는 소슬한 감정에 젖어 생각이 많아진다. 밭을 구경하는 내게 가지를 하나 따서 손에 쥐여주는 아주머니가 있는가 하면, 코발트 하늘을 쳐다볼 염도 없이 내달리는 급한 등산객도 있다. 조그마한 가지라도 나누어 주는 아주머니를 보며 사는 것에 문득 생각이 멈춘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래의 여성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늙어가는 모습에 앙탈을 부리듯 피부샵을 다니며 얼굴을 가꾸는 것인지, 철 따라 명품을 사며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노래교실이다 요가다 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는 감정들이 복잡하다. 결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 본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린다.

설령 가난해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정치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최소한 관심을 가지는 삶,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광주 YWCA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절실하다

김재영

섀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배 한 척이 나오는데, 그 배는 바로 섀클턴이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하기 위하여 탔던 '앤디오런스'이다.

거기에 보면 배가 남극을 횡단하지 못하고 중도에 얼음 사이에 갇혀 꽁꽁 얼어붙어서 침몰해버리고, 28명이 2년간에 걸쳐 보트로 생활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음 구덩이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 섀클턴이다. 학자들이 그를 연구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궁금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섀클턴은 비전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지도자였다. '이리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지도자였다. 자기 몫만 챙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지도자였다.

어느 날 노를 저어 가는데 대원 중에 장갑을 잃어버린 대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장갑을 서슴지 않고 벗어 주었다. 자기는 동상이 걸려도 대원들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 때로는 대원들이 비스킷 8분의 1조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스킷 한 조각을 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섀클턴의 지도력 때문에 27명의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2년 만에 추위를 피하여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스콧이라는 탐험대장이다. 그도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원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그는 섀클턴과 좀 다른 지도자였다.

그는 대원을 뽑을 때부터 영국 황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만 뽑았다. 시시한 사람들은 다 팽개치고 우수한 사람만 뽑았다. 그뿐 아니라 항상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위에서 명령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 남극의 얼음 더미 속에서도 아침마다 조회를 했다. 대원들이 동상에 걸려도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손 검사를 하고 또 하던 그런 지도자였다. 그뿐 아니다. 꽁꽁 얼어붙은 갑판을 닦으라고 명령을 하던 그런 지도자였다. 그의 지도로 대원들은 모두 남극의 얼음 더미 위에서 죽어 갔다.

지도력은 한 단체와 한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지도자와 지도력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기보다 지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력이 없이는 설령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도력은 이처럼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가 지녀야 할 지도력은 어떤 것인가?

창조적인 삶은 항상 꿈에서 움튼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지도자는 숭고한 이상과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는 창의력은 항상 발전과 전진을 지향하는 지도자를 만들어 준다.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열 마리의 사자떼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열 마리의 양떼가 단체전에서는 더 강하다는 말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통솔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력을 형성하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처음부터 100%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반대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하고, 반대자가 있을 경우 그 계획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강행을 하는 것은 둘 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반대자와 접촉하고 대화하여 반대자로 하여금 협조자가 되도록 만드는 설득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에 경망스러운 사람은 지도자로 부적절하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피곤하고 아픈 육신적인 고생도 견딜 줄 알고, 아니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정신적인 수모도 참을 줄 알며, 지루하고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인내도 익힐 줄 아는 지구력을 가진 지도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

그런 점에서 지구력은 좋은 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기고

청산도는 우리 모두의 섬…소중하게 보호하자

이진

청산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뱃길로 50리, 여객선으로 50분이 걸리는 인구 2577명에 면적 42.58㎢의 한반도의 남해에 고즈넉하게 떠 있는 섬이다. 이 조그마한 섬이 지금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섬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청산도 여객선이 출항하는 완도항 일대는 연일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인근 식당가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다.

식당뿐만 아니라 완도읍내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도 객실이 만실되어 초저녁부터 간판 조명을 내려야 한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완도특산품인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등 해산물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행여 선물을 하기 위해 많은 양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가게를 다녀야 한다.

청산도는 화려한 섬은 아니다.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놀고 즐기는 섬도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섬이기에 전국 각지에서 이토록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일까? 청산도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의 소박하고 수줍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이다. 손끝으로 그려놓은 듯한 구불구불한 논두렁·밭두렁,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소박한 시골마을, 키 작은 돌담길, 봄이면 온 들판을 파랗게 수놓는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 물결, 들판에 앉아 어린 보리를 보살피는 아낙네들의 한가로운 모습 등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고향의 정겨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밤낮없이 일만 했다. 자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구차스러운 사치에 불과했고 느림과 여유는 게으름으로 배척당했다. 그 결과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황폐화됐고 감정은 메말라 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의 감성을 되찾자는 운동이 슬로시티 운동이다. 완도 청산도는 지난 4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받았다.

완도군에서는 청산도를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산도가 청산도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산도 경관을 잘 지켜야 한다. 건물, 담장, 도로, 농배수로시설은 물론 사소한 공작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청산도 경관지침을 만들어 청산도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산도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청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산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한 행정기관, 지역주민, 그리고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를 간직한 마지막 남은 섬일지도 모르는 청산도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망가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청산도가 한국인 모두의 고향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완도부군수〉

금융 신용평가, 불량정보보다 우량정보에 비중둬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정말 요즘 서민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양극화가 갈수록 더 커지는 와중에 기댈 곳 조차 없는 서민들이 사금융과 사채에 내몰리는 현실이다.

돈 없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캐피탈회사나 대부업체, 심지어는 불법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등급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할 뿐더러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좀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으니 서민들은 너무 힘이든다.

현재 신용등급 산정의 문제점은 이렇다. 대출금 연체가 없어도 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신용이 낮아지고, 담보가 주택이든 예금이든 상관없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등급이 내려가거나 카드론 이용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깎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신용등급 산정이 불량정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가 평가에 활용하는 정보에는 이자 상환, 대출금 성실 상환, 고소득 등 우량정보보다 연체나 채무 등 불량정보의 비중이 더 높다고 한다. 그러니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도 저신용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신용등급을 메길 때 불량정보로 산출할 게 아니라 우량정보를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는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다루고 평가함에 있어서 불량한 정보보다는 반드시 우량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유병양·광주시 동구 소태동

2014 수능 선택과목 축소로 수업지도 혼선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써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감이 든다.

지금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과목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생님이 보다못해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들은 "저는 수능에서 이 과목 선택 안 하는데요"라는 답을 하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더러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교과목이므로 성실하게 들으라고 말을 해도 학생은 듣는 둥 마는 둥 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것을 제재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장난 아니고, 그런 항의가 넘칠 경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2014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게 뻔하다. 즉 2013년도까지는 그나마 대입 수능시험이 8과목이지만 2014년도 수능에서는 국·영·수 외에 딱 한 과목만 더 치르면 된다. 즉 수능시험이 4과목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영·수를 제외하고 본인이 선택한 1과목 외에는 학생들이 거의 등한시 할 게 뻔하다.

지금도 대입 위주의 수업방식 때문에 고3 교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찌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사설

정부, J프로젝트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전남도가 추진 중인 J프로젝트(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가 26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J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펀드' 등 새로운 투자모델을 도입하고, 정부가 앞장서 투자의 걸림돌인 부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 카지노 설치 등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인, 크루즈·요트·마리나를 선도사업으로 하는 해양·관광 중심의 프로젝트 및 F1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8년 전 수립했던 골프장 중심의 방향을 수정해 중국 등을 겨냥한 새로운 환경 변화를 모색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J프로젝트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게 없다. 착공은커녕 부지 양도·양수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J프로젝트가 들어설 해남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땅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추진하면서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도 땅이 없어 홍보관 하나 짓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이 또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J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의 역점사업이다.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발목 잡기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포럼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광주 대형마트 지역 생산품 홀대, 도 넘었다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한 데 이어 지역 생산품 판매마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광주·전남지역 생산품 비율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6일 광주시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6~9월 3차례 걸쳐 광주지역 백화점·대형 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총 22개 판매장에서 20개 품목에 대한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생산품 비율은 36.7%에 그쳤다.

품목별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생산품이 6월 36.3%에서 7월 25%, 9월 22.5%로 점차 떨어졌다. 곡물은 평균 20% 이하로 낮았으며, 심지어 현미는 5% 이하였다. 포도·복숭아 등도 95% 이상이 타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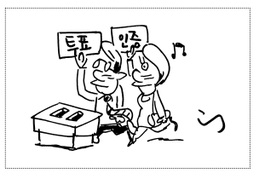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출, 포화상태에 이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30개로, 인구 4만 7000명당 1개꼴이다. 점포 1곳당 인구수가 10만 이하일 경우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에 대형 유통업체 진출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대거 진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에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거액의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원칙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서민 및 지역경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광주시 등 지자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진입을 막아야 하며,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도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넥타이와 하이힐부대



1987년 6월 광주 금남로 일대는 연일 희뿌연 최루탄가스 연기로 자욱했다. 금남로 1가에서 5가에 이르는 차도는 시위대에 점령 당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시위대의 주류는 학생이었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지원하러 나온 직장인들도 많았다.

일명 '6월 항쟁' 당시 현장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서울 명동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남성 사무직 직장인을 뜻하는 '넥타이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는 6월 항쟁의 주체를 더욱 폭넓게 확산시켜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조용한 다수'라는 논리를 여지없이 깨부수고 말았다.

결국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어냈고, 군사독재 정치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연장으로 귀결돼 내용적으로는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넥타이부대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24년 전 6월 항쟁에서 민주화의 길을 텄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화를 내용적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여성 직장인인 '하이힐부대'까지 가세해 파괴력이 한층 커졌다. 하이힐부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들의 힘은 올해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써니'의 흥행에서 입증됐다. 하이힐부대가 영화관을 찾은 탓에 써니는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하이힐부대의 파워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넥타이부대와 함께 트위터로 교신하면서 변화를 공유했고, 인증샷을 날리면서 투표를 독려해 시민후보 당선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원순의 승리는 곧 시민의 승리이고, 시민의 중심에는 넥타이부대와 하이힐부대가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넥타이부대와 하이힐부대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